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7: 성품의 변화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중 일곱 번째 적극적 표지, 인쇄 480~486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원리를 세운다.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 깨달음에서 나온다. 영적 깨달음은 지금의 기분만 바꾸지 않고 영혼의 본성 자체를 바꾼다. 성경이 회심을 거듭남, 새 피조물, 부활로 묘사한다는 점이 그 근거다. 그러므로 회심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옛 성질과 습관이 그대로이거나, 잠깐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 체험은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회심이 타고난 기질을 완전히 뽑아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기질이 더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어서 에드워즈는 “감정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오히려 그 체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성령은 영혼 안에 거하시며 새 본성이 되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는 회심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이어진다고 말한다. 참된 고양된 감정은 모세의 얼굴처럼 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빛을 남긴다.

🪪 표지 카드

표지 7(적극): 은혜로운 감정이 다른 감정과 다른 또 한 가지는, 본성의 변화가 언제나 함께 따른다는 점이다.

이 표지가 증거인 이유는 이렇다. 참된 감정의 뿌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은 영혼의 본성을 바꾸는 창조주의 능력이다. 다른 힘도 기분과 기질은 잠시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오래가는 새 본성은 오직 하나님만 만드신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보다 훨씬 믿을 만한 증거다.

📜 절별 정리

📜 1. 영적 깨달음은 본성을 바꾼다

에드워즈는 앞 표지들에서 세운 원리에서 출발한다. 모든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인 지식에서 나오고, 영혼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지금의 마음 작용과 느낌을 바꿀 뿐 아니라, 영혼의 본성 자체를 바꿀 만큼 강한 힘이 있다. 근거는 고린도후서 3:18이다.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에드워즈는 이 능력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다른 힘도 사람의 기질과 감정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본성을 바꾸고 새 본성을 주는 일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깨달음만이 이런 초자연적인 결과를 낸다. 순서로 말하면 깨달음, 깊은 감화, 변화다.

1. 은혜로운 감정의 뿌리는 영적 지식이다
2. 영적 깨달음은 영혼의 본성까지 바꾼다
3. 기분 변화는 다른 힘도 일으킬 수 있다
4. 새 본성은 창조주만 주실 수 있다
5. 순서: 깨달음 → 깊은 감화 → 변화

> **고린도후서 3:18**
>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형상으로 변하게 한다는, 이 표지 전체의 기둥
>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창조주의 능력만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본성을 주실 수 있다.”

📜 2. 성경이 회심을 묘사하는 방식

에드워즈는 회심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들을 한꺼번에 나열한다.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마음을 새롭게 함,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삶,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 새 줄기에 접붙여짐, 신령한 씨앗이 심겨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이 그것이다. 이 표현들은 모두 겉모습을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성경을 존중한다면, 회심을 본성의 변화 없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에드워즈는 이 대목에서 표현만 들고 장절은 달지 않았다. 아래 표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 대표 구절이다.

1. 성경의 회심 묘사는 모두 '새로 됨'이다
2. 거듭남·새 피조물·부활·접붙임·씨앗
3. 겉 수선이 아니라 존재의 새 출발
4. 그러므로 회심은 곧 본성의 변화다

요한복음 3:3

'거듭남' 표현의 출처. 새로 태어나는 수준의 변화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17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됨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5

'죽은 자를 살리심'. 회심을 부활로 묘사함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1:17

새 줄기에 접붙여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요한일서 3:9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베드로후서 1:4

신의 성품(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 3. 크고 지속되는 변화가 없다면

에드워즈는 결론을 분명히 말한다.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크고 놀랍고 오래가는 변화가 없다면, 감정이 아무리 높았어도 그 모든 상상과 겉치레는 헛되다. 회심은 사람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크고 전반적인 변화다. 그는 '자제'와 '변화'를 구별한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죄를 참을 수는 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마음과 본성 자체가 죄에서 돌아서 거룩함을 향하고, 죄와 원수가 된다. 위선자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그린다. 시간이 흘러도 예전의 나쁜 성질과 악한 습관이 뚜렷이 바뀌지

이야기를 무색하게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체험담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변화 없는 체험담은 헛된 겉치레다
2. 자제는 회심 전에도 가능하다
3. 회심은 본성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4. 옛 습관이 그대로면 매우 부정적인 증거
5.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 창조

> **갈라디아서 6:15**
> 할례·무할례도, 자랑스러운 체험담도 아닌 '새로 지으심'만 유효하다
>
>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 **고린도후서 5:17**
>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는 기준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4. 잠깐의 변화는 본성의 변화가 아니다

한때 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예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본성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성은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동물 비유를 든다. 돼지를 씻겨도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돼지의 본성은 그대로다. 반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비둘기는 더럽혀질 수 있어도 그 본성은 남는다. 이 비유는 양쪽을 다 가르친다. 위선자는 잠시 깨끗해져도 다시 진흙으로 돌아간다. 성도는 넘어져 더러워져도 깨끗함을 사랑하는 본성이 남아 있어 다시 돌아선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은 한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결국 끌리는 방향이다.

2. 일시적 변화 후 되돌아감은 본성 변화 아님
3. 씻긴 돼지: 겉만 깨끗해진 위선자
4. 더럽혀진 비둘기: 넘어져도 본성은 성도
5. 기준은 '결국 어디로 끌리는가'

> **베드로후서 2:22**
> 씻긴 돼지가 진흙으로 돌아감. 에드워즈 비유의 성경적 배경(본문에 장절 표기는 없음)
>
>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본성은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5. 타고난 기질은 어떻게 되는가

에드워즈는 지나친 기대를 바로잡는다. 회심이 본성적 기질, 곧 타고난 성격과 잘 끌리는 죄의 경향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않는다. 회심한 사람도 예전에 가장 쉽게 빠지던 죄에 여전히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은혜는 그 기질을 “고칠” 수 있다. 회심의 변화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다. 기질적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죽음에 넘겨진다. 예를 들어 음란이나 방탕, 악의에 잘 기울던 사람은 여전히 그 위험 안에 있어도, 그 죄들이 더는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인격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참된 회개는 자기에게 가장 깊이 박힌 죄를 특별히 미워하게 만든다. 반대로 다른 죄는 다 버리면서 자기의 주된 죄 하나만 남겨 두는 사람은 사울과 같다.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찮은 자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왕은 살려 두었다.

1. 회심은 기질을 완전히 뽑아내진 않는다
2. 그러나 은혜는 기질을 고친다
3. 기질적 죄가 더는 지배하지 못한다

5. 주된 죄만 살려 두면 사울과 같다

> **사무엘상 15:3**
>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 죄를 남김없이 미워해야 함
>
>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 **사무엘상 15:8**
>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 둠. 주된 죄를 남겨 두는 거짓 회개의 그림
>
>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 **에베소서 4:22**
> 옛 사람을 벗음. 회심은 일부가 아니라 전반적 변화
>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고린도후서 5:17**
>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짐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6. 반론: "감정이 사라진 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이렇게 변호한다. 깨달음과 감정이 사라지자 다른 것도 다 사라지고 원래의 자기만 남았다. 그러니 그 체험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보거나 느낄 수 없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말이다. 에드워즈는 전제의 절반에는 동의한다. 성도 안의 모든 은혜와 선은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방식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영혼의 기능들과 연합시키시고, 새 본성의 원리로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령은 영혼 밖에서

은혜를 받은 영혼은 영원한 새 본성을 받는다. 요컨대 “다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다.

1. 반론: 사라졌으니 하나님 것이었다
2. 동의: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3. 오류: 성령은 밖에서 미는 분이 아니다
4. 성령은 안에 거하시며 새 본성이 되신다
5. 사라짐은 본성 변화가 없었다는 증거

> **요한복음 4:14**
> 주시는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됨.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음
>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요한복음 7:38**
>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
>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요한복음 7:39**
> 그 생수가 성령을 가리킴.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심
>
>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 7. 유리창이 아니라 작은 태양: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림들

에드워즈는 성령의 내주를 비유로 설명한다. 먼저 유리 비유다. 햇빛을 받은 유리의 빛이 전부 태양에서 오듯, 영혼의 은혜도 전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나 이

“작은 태양”이 된다. 그래서 더 나은 비유는 성막의 등이다. 하늘에서 온 불로 붙여졌지만, 그 뒤로는 등 자체가 타면서 빛을 낸다. 생수 비유도 같다. 성도는 샘에서 물을 받아 마시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물이 성도 안에서 솟아 흘러나가는 샘이 된다. 씨앗 비유도 마찬가지다. 씨는 땅에 그냥 놓여 있지 않고, 거기 뿌리내려 자라며 생명을 드러낸다. 이 비유들은 모두 출처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은혜가 성도 안에 진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함께 붙든다.

1. 유리 비유: 빛은 전부 태양에게서
2. 하지만 유리는 끝내 스스로 빛나지 않음
3. 성도는 본성이 바뀐 '작은 태양'
4. 성막 등: 하늘 불로 붙어 스스로 탐
5. 샘과 씨앗: 은혜가 안에 뿌리내린다

> **요한복음 4:14**
> 받아 마신 물이 내 안의 샘이 됨 (에드워즈가 직접 참조하라고 함)
>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요한복음 7:38**
> 내게서 생수가 흘러나감 (직접 참조)
>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요한복음 7:39**
> 그 물은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직접 참조)
>
>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 **베드로후서 1:4**
> 원천의 본성에 참여함. '작은 태양' 비유의 신학적 근거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가 또한 작은 태양이 되어, 그 빛의 원천인 태양의 본성에 참예하게 된다."

📜 8. 변화는 평생 계속된다

회심 때의 깨달음만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회심 뒤에 겪는 모든 영적 깨달음과 감정에도 처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마음 밑바닥까지 닿아, 체험한 만큼 영혼을 계속 바꾼다. 이 일은 이 땅의 삶이 끝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이어진다. 에드워즈는 성경이 이미 회심한 성도들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바울은 로마서 1:7에서 "성도"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들에게 로마서 12:1~2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한다. 에베소서도 같다. 바울은 이미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살린 그 능력을 더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1:16~23). 그리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다(4:22~24). 성도의 삶은 본성이 계속 새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1. 회심 후의 깨달음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2. 체험한 만큼 마음 밑바닥이 바뀐다
3. 변화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4. 이미 '성도'인 이들에게 "변화를 받으라"
5. 성도의 삶 = 계속되는 새로워짐

> **로마서 12:1~2**
>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도에게 주는 계속된 변화 명령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7

그 권면을 받는 이들이 이미 '성도'임을 확인시키는 비교 구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16~23

회심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해 달라는 기도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

에베소서 4:22~24

이미 성도인 이들에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3:18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9. 산에서 내려와도 빛나는 얼굴

어떤 사람들의 고양된 감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한때는 열광에 가까울 만큼 치솟았다가, 갑자기 완전히 꺼져 아무 느낌도 행동도 없는 상태가 된다. 에드워즈는 높이 고양된 은혜로운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감정은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의 달콤한 향기와 맛을 남기고, 하나님과 거룩함을 더 강하게 추구하게 만든다. 그는 모세를 예로 든다. 모세의 얼굴은 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만 빛난 것이 아니라 내려온 뒤에도 빛났다. 그리스도와 깊이 사귄 사람의 성향과 생활에도 남들이 알아챌 만한 무언가가 남는다.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알았듯이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1. 거짓 고양: 치솟았다가 흔적 없이 꺼짐
2. 참된 고양: 향기와 맛이 남는다
3. 하나님과 거룩을 더 추구하게 된다
4. 모세의 얼굴: 내려와서도 빛났다
5. 남이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안다

> **출애굽기 34:29~30**
>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계속 빛남. 참된 체험이 남기는 흔적
>
>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 **사도행전 4:13**

>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끌리거나 싫어하는, 의지가 실린 강한 움직임. 단순한 기분과 다르다.

본성(nature)
한 존재가 늘 끌리는 근본 방향.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깊은 곳의 '무엇을 좋아하는 존재인가'.

본성적 기질
타고난 성격과 그 때문에 특히 잘 빠지는 죄의 경향.

영적 깨달음(영적 지식·조명)
성령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보게 되는 앎.

회심
사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본성 차원의 크고 전반적인 변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성도 밖에서 잠깐 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머무르시며 새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것.

위선자
참된 은혜 없이 신앙의 모양과 체험담만 가진 사람. 대개 자기도 속고 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로운 감정은 언제나 본성의 변화를 데려온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 변화의 증거는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방향이다. 본성은 영구적이다.
- 회심은 타고난 기질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 지배를 끊는다. 참된 회개는 자기의 주된 죄를 가장 미워한다.
-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시며 그를 '작은 태양', 솟는 샘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뿌리내린다.
- 이 변화는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에게는 산에서 내려와도 빛이 남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8편 · 성품이 바뀐다 · 표지 7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